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8.01.20.~2018.02.10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온타리오주 수세인마리에 있는 대학입니다. 시설은 큰 건물 대략7~8개 정도 있으며 평온하며 학교가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내용은 grammar, speaking and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critical thinking 등이 있으며 수업이 끝난 후 간단한 과제가 있으며 분반은 A반과 I반으로 분반 하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총 5분이었으며 대체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수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유쾌하셔서 재미 또한 있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스키, 개썰매, 스노우슈잉, 다운타운, 아이스하키 경기 보기, 한국 문화 알리기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학교측에서 지원해준터라 activity 비용에 대해서는 드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냥 한국의 한겨울보다 추우며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보온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며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정말 안전합니다. 또한 해가 빨리 지고 있어서 딱히 밖에 오래 놀기도 좀 힘든거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대부분 쓰겠지만 샤워 규칙이 샤워는 10분내로 끝내며 또한 욕조에서 물 길을 다 말리고 나와야 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한식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날겁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버스로 다녔으며 교통카드를 학교에서 주어서 드는 비용은 없었으며 교통편이 정말 없어서 평일에는 30분씩 주말에는 60분에 한 대씩 옵니다. 또한 평일 저녁에도 60분에 한 대씩 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1,573,100	출국 전 사전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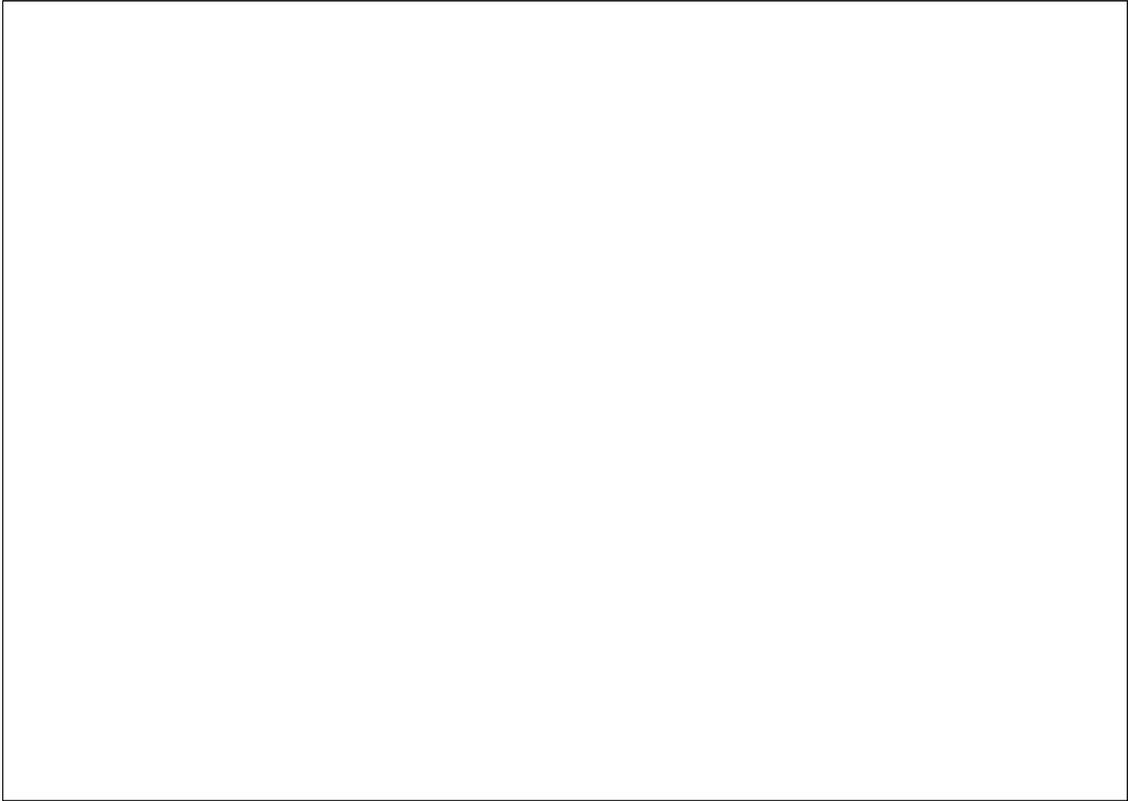
여행자보험		
단체보험	33,000	
식비	140,000	
기념품	120,000	
옷	100,000	
합계	1,966,1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일단 정말 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이 평온한 곳이며 바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추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할 것을 미리 알아두고 간다면 더 재미있게 다녀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고 또한 지역이름은 처음 들어 본 곳이라 많이 낯설었다. 심지어 이번에 남자인 친구들 또한 없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친구 동생들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느낀점 들이 있었지만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정말 3주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다 온 여행이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며 대부분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한 교통예절에서도 얼마나 인식이 잘되어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막 바쁘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첫여행 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여행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평온하게 지내오는 것이 정말 좋다고 느끼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동아대 친구들과 하키경기 보러 간 날



알파카 보러 간 날



홈스테이 가족 및 친구들과 스케이트 타러 간 날



스노우슈잉 타러 간 날



첫 오티 단체 사진



말 썰매 타러 간 날